

펄프종이기술이 만난 제지인

글로벌 친환경 선도기업 한솔제지

한 경 록 대표

펄프종이기술은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품질 일등주의로 제지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한솔제지의 새로운 리더 한경록 대표를 만났다. 한경록 대표는 10여 년간 한솔에 몸담아 오면서 전략기획, 마케팅, 미국법인장 등의 요직을 거치며 한솔의 변화와 발전에 앞장서 왔다. 한경록 대표는 ‘최고의 기술로 차별화된 고객맞춤 가치를 제공하는 친환경 선도기업’이라는 한솔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한솔의 기존의 제품군을 더욱 내실화할 뿐 아니라, 미래사회를 위한 친환경 제품과 소재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60년의 역사를 관통하며 끊임없이 성장해온 한솔제지를 이끌 한경록 대표와의 만남은 독자들에게 제지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펄프종이기술: 안녕하세요? 먼저 한솔을 이끌게 되신 한 대표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취임 초기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한 대표님께서 한솔에 입사하신 후 담당하셨던 업무 등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경록: 저는 10년간 금융 쪽에서 일하다가 2014년 한솔제지에 입사하여 M&A를 포함한 전략기획, 브랜드와 클레임 대응을 포함한 마케팅, 북미 전체 영업과 물류를 총괄하는 미국법인장, 인쇄감열사업본부 영업과 생산을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올해부터 한솔제지 대표이사의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펄프종이기술: 한솔에서 담당하셨던 업무 가운데 가장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인쇄감열사업본부와 라벨 비즈니스의 실적을 확대시킨 것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한경록: 아무래도 최근에 일했던 인쇄감열사업본부에서의 기억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데 저희 임직원들과 함께 3년간 본부 실적을 한솔제지에서 가장 큰 cash cow 부서로 발전시킨 점과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라벨 관련 비즈니스를 2배 이상 확대시킬 수 있었던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커리어를 미국 금융시장에서 시작하여 한국 제조업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솔제지 입사한지 10년이 넘는 지금에는 제 몸에 한솔제지의 파란색 피가 흐르고 있다고 착각할 정도로 제지맨으로 적응한 것 같습니다.

펄프종이기술: 한솔제지는 고품질의 다양한 지종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솔의 지종별 포트폴리오 변화를 보면 국내 제지산업의 성장을 위한 노력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한솔의 변화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용지부터 다양한 특수지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군으로 고객과 만나고 있습니다.”

한경록: 한솔제지는 1968년 신문용지 생산을 시작으로 90년대까지 인쇄용지, 산업용지, 기능성 특수지로 지종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디지털 결제수단의 활성화와 이커머스 확대에 대응하여 감열지, 라벨지로 다시 한 번 사업영역을 넓히면서 인쇄, 백판, 감열, 특수 등 다각화된 생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국내에서는 유일하고 글로벌 측면에서도 가장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종합제지회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기술로 차별화된 고객맞춤 가치를 제공하는 친환경 선도기업’이라는 비전에 따라, 현재는 전 세계적인 탈플라스틱 추세에 대응하여 기존 플라스틱 포장을 대체하는 종이로 만든 다양한 연포장, 경포장 제품의 개발과 확대에 주력하면서 친환경 패키징제품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펄프종이기술: 한솔제지는 여러 곳에 사업장을 가진 제지사인데 종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아직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솔의 사업장에 대해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경록: 한솔제지는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본사를 비롯, 장항과 대전, 천안과 신탄진 등 4개 거점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에 총 5개의 글로벌 법인과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항공장은 1992년 준공되어, 연간 60만 톤의 종이를 생산하는 그야말로 인쇄용지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대형설비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고급 인쇄용지와 함께 시장상황에 맞춰 감열지 등 특수 소재 종이를 스윙 생산할 수 있는 유연한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전공장은 1995년에 준공되었으며 연간 75만 톤이라는 국내 최대 백판지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생 종이자원 활용비율이 90% 이상인 친환경 공장이기도 하며, 최근에는 재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잘 알려진 멸균팩 재활용 설비 투자를 통해 멸균팩 재활용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멸균팩 자원 선순환모형을 구축하였습니다.

천안공장의 경우, 1993년에 준공되었는데 2003년에 한솔파텍에서 한솔제지로 합병된 특수지 전문공장입니다. 고급 인쇄용지와 팬시지를 비롯하여, 전사지, 글라신지, 감열지 등 다양한 특수용지를 연간 10만 톤 가량 생산하면서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로테고와 테라바스와 같은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친환경 연포장 및 경포장 제품을 위한 원지와 코팅을 개발하여 특수지 포트폴리오를 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신탄진공장은 1997년에 준공되어 2017년에 한솔아트원제지에서 한솔제지로 합병된 케이스입니다. 연간 30만 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2018년 설비투자를 통해서 인쇄용지 생산은 물론, 감열지 생산능력까지 갖추면서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POS감열지와 인쇄용지의 수요 감소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성장을 하고 있는 라벨용 감열지 전문 생산 공장으로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펄프종이기술: 한솔제지는 그야말로 종합제지 메이커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솔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팬시지와 플라스틱 포장을 대체하는 친환경
패키징의 포트폴리오를 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경록: 위원장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한솔제지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갖춘 국내 유일 종합 제지회사로서 인쇄용지, 산업용지, 감열지, 팬시지, 특수지 등을 고루 망라하고 있습니다.

독자 분들과 학생들을 위해 간략하게 저희 제품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한솔제지에서 생산하는 인쇄용지는 펄프를 주원료로 생산하는 제품으로, 각종 도서나 교과서, 카탈로그, 캘린더 등 인쇄출판 제품에 주로 사용됩니다.

산업용지는 천연펄프와 재생펄프를 배합하고 다층구조로 생산되어 일반 종이에 비해 두껍고 강도가 우수하여 의약품 및 제과, 고급 포장재 등 다양한 패키징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한솔제지는 주로 백판지 중심의 산업용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SC, IV, AB 등 다양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열지는 특수 약품 처리를 통해 일정 온도 이상의 열이 가해지면 발색이 되는 기능성 종이로, 주로 영수증이나 티켓, 복권용지를 비롯, 택배 및 제품 라벨 등에 사용되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한솔제지가 생산하는 팬시지는 다양한 색상과 패턴으로 구성되어 주로 프리미엄 브랜드 제작물 (명품 브랜드 패키지, 쇼핑백 등)에 사용됩니다. 특히, 한솔제지의 팬시지는 2018년 ‘Inspiring’과 ‘Paper’를 합성한 Insper 브랜드를 런칭하였으며, 브랜드 네이밍에 걸맞게 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주는 종이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수지의 경우,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여 생산하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이뤄진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제지기술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여 다른 제품보다 성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전통적인 제지 영역에서 한발 더 나아가 친환경패키징과 신소재 등을 개발해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패키징 분야에는 플라스틱 비닐과 알루미늄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종이 포장재인 프로테고와 폴리에틸렌 (PE) 코팅 대신 수용성 코팅액을 적용한 친환경 종이 용기 테라바스 제품이 있는데 식품과 제약, 각종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판매가 확대되고 있어 기대가 큼니다.

친환경 신소재 분야에서는 셀룰로오스, 리그닌 등 펄프에서 유래된 친환경 목질계 소재를 활용한 적용 기술을 개발해 협업 파트너와 함께 상용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펄프종이기술: 그야말로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지종을 공급하는 한솔이라 할만한데요. 여러 지종 가운데 한솔은 특히 감열지 시장의 세계적 리더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솔이 어떻게 세계 감열지 시장의 리더기업이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한경록: 한솔제지는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약 1천억 수준의 대규모 투자와 임직원들의 각고의 노력 및 수많은 고객들의 도움으로 영수증, 라벨, 티켓 등 감열지 전부분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감열지 제품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지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솔제지가 세계 감열지 시장에서 리더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포함한 어떤 개인의 노력이라고 하기 보다는 영업, 공장, 연구소, 해외지법인에 계신 우리 모든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솔 감열지 제품을 믿고 써주시고, 시장환경 변화 시 저희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는 국내외 고객들의 지원과 도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펄프종이기술: 앞에 간단히 언급해 주셨지만, 최근들어 한솔제지는 플라스틱을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솔제지가 가진 친환경 사회를 위한 비전은 무엇인지요?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의 친환경성에 기반한 미래 소재와 제품에 대한 투자를 적극추진 중입니다.”

한경록: 현재 지구의 환경문제는 모든 국가와 사회, 기업, 사람들이 동참해야 하는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목재에서 나온 펄프를 기반으로 한 종이 소재는 그 태생부터 다른 석유화학 제품 대비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종이의 원료는 지구 생태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탄소흡수원 중 하나인 숲을 지속가능하게 원료화하여 관리하는 조림지를 통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이소재는 높은 재활용률에 따라 자원의 순환 측면에서도 매우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솔제지의 기본적인 친환경 비전은 다양한 종이 제품과 소재를 개발하고 소비자들에게 종이의 친환경성을 홍보하여 전 세계의 소비자들이 종이소재를 더욱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플라스틱이나 필름과 같은 석유화학 소재를 보다 더 친환경적인 종이소재로 대체하기 위한 신제품과 신소재를 개발하고 관련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한솔제지는 국내 최대 종합 제지회사로서 친환경에 대한 막중한 사명과 책임감을 갖고 종이와 목질계 신소재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와 기업들이 이루고자 하는 친환경 흐름에 부응하는 제품과 알맞는 솔루션을 앞으로도 제공할 것입니다.

펄프종이기술: 한솔제지는 임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안전에도 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경록: 임직원들의 행복과 업무몰입을 위하여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출산과 육아, 자녀교육, 의료비, 주거지원, 각종 경조사 등과 관련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2회 연속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임직원들이 안정된 미래를 꿈꾸며 결혼, 출산, 양육을 행복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업의 의무이며,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으로 연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임직원이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걱정 없이 일과 가정에서의 삶을 조화롭게 꾸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다쳐가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슬로건 아래 안전보건계획을 철저히 수립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CSO(Chief Safety Officer) 산하의 안전운영팀을 중심으로 각 산업현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45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국제적 수준의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갖추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펄프종이기술: 요즘 제지업체는 ESG 경영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솔제지는 업계의 선도 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버려지던 종이팩의 재활용 설비투자로 자원순환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경록: 한솔제지는 기업의 환경,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ESG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ESG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솔제지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종이 연포장 소재 ‘프로테고’, PE-Free 코팅 용기 ‘테라바스’, ‘고래를 구하는 물티슈’ 등의 친환경 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나노셀룰로오스, 리그닌 등 목재에서 유래된 소재를 활용하여 친환경 신소재 기술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솔제지는 자원 순환 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종이팩의 재활용은 14%수준으로 대부분 버려지고 있는 종이 자원입니다. 재활용이 낮은 원인은 미흡한 수거체계와 종이팩을 재활용하기 위한 별도 설비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솔제지는 종이팩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관련업체와 협력을 통해 종이팩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대규모 설비투자를 통해 종이팩이 버려지지 않고 제품화 될 수 있는 자원순환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에서도 한솔제지는 업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공장 내 열효율 개선, 폐열 회수, 태양광 발전 설비 도입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50년 탄소중립(Net-Zero) 목표 달성을 위해 앞장설 계획입니다.

펄프종이기술: 한솔제지가 젊은 세대에 친숙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종이박물관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솔의 종이박물관에 대해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솔 종이박물관과 Museum SAN에서 종이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여유와 휴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한경록: 한솔종이박물관은 ‘종이는 문화를 담는 그릇이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1997년 전주에 국내 1호 종이전문박물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국보 제277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보물 제1222-1호 범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등 총 12 점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으며, 현재는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 내에 위치한 Museum SAN으로 이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솔종이박물관은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공공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사회환원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



업적 가치로서의 종이보다는 우리 종이의 문화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소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솔종이박물관은 Museum SAN을 떼어놓고 설명드리기 어려운데요. 2013년에 개관한 Museum SAN은 종이 박물관(페이퍼갤러리)과 미술관(청초 갤러리)으로 이루어진 종합 뮤지엄이며, 그 이름에서 의미하듯이 공간(Space), 예술(Art), 자연(Nature)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노출 콘크리트의 미니멀한 건축물의 대가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것으로도 유명하며, ‘소통을 위한 단절’이라는 슬로건 아래 종이와 아날로그를 통해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잊고 지냈던 삶의 여유와 휴식을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각광받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펠프종이기술: 한솔제지는 업계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중앙연구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대표님이 연구소에 거는 기대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찾고 사업화하는 한솔중앙 연구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경록: 한솔제지는 1979년에 국내 최초로 제지연구소를 설립할 정도로 연구개발에 진심인 회사입니다. 국내 다른 회사와 차별화된 중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신소재 연구팀, 패키징 연구팀, 제지연구팀의 3팀 체제로 약 50명의 연구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소재 연구팀은 친환경 소재개발이 중점 사업영역이며, 예를 들면 셀룰로오스 미세섬유, 리그노셀룰로오스, 리그닌 등 목재 유래 소재의 사업화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재의 발굴 및 생산기술은 확보되었고 파일럿 설비를 활용, 소재의 생산/판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친환경 천연유래 소재는 장점이 많고 이에 대한 시장의 니즈도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양산설비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패키징 연구팀은 친환경 패키징 소재를 연구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플라스틱 사용에 의한 환경 오염이 국제적 이슈가 된지 오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종이 기반 소재의 적

용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는 건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내 시장의 성장은 다소 더딘 편이지만 글로벌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조만간 국내외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성능이나 품질, 가격 등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이나 디자인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주로 식품사, 식음료 프랜차이즈, 생활용품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제품군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에 필요한 원지, 코팅 약품, 코팅 기술, 설계 및 디자인, 후가공 공정 대응 기술 등을 연구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지 연구팀은 기존 사업과 관련된 현업에서의 기술 니즈에 신속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축적된 기술 역량과 분석설비 등 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품질/원가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저희 중앙연구소가 한솔의 현재이자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미래의 먹거리를 찾고 사업화하는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생각합니다. 연구소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선도적인 R&D를 진행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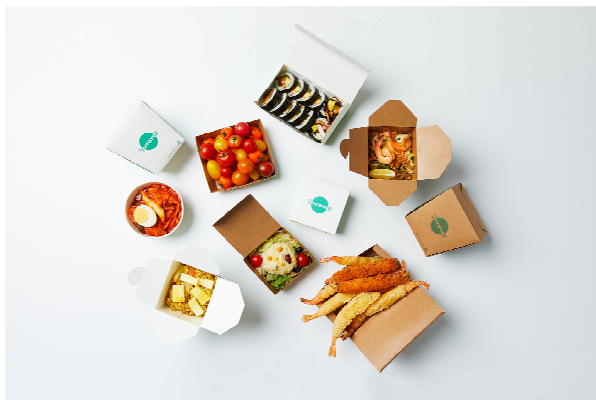
펠프종이기술: 종이자원의 품질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시기 한솔제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던 것으로 잘 알려졌는데, 활용효과는 어떤지요?

“제지사와 종이자원 공급사 간에 상호 긴밀한 의사소통과 협업활동이 더욱 강화되길 바랍니다.”

한경록: 수분 측정기를 도입하면서 달라진 점을 뽑자면 무엇보다도 당사와 종이자원 공급사 간 신뢰가 향상되면서 상호 win-win이 되는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수분측정기 도입 이전에는 종이자원에 대한 수분함량을 검수할 때 경험을 토대로 하여 육안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러다 보니 정확도 측면에서 상호간 잦은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종이자원은 생산품이 아니라 수거품이기 때문에 종이자원 속에 함유된 수분은 날씨와 환경에 의해 편차가 있을 수 밖에 없기에 수분함량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지만 번번히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분측정기를 도입하면서부터는 수분을 기계로 측정하다 보니 객관성과 정확도가 향상되면서 이러한 불



필요한 소모전이 사라지게 되었고, 공급사에서도 좋은 품질을 납품하면 그에 상응한 정당한 평가와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종이 자원의 품질이 더욱 향상되는 선순환 작용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업무방식과 인식의 변화는 곧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하였고,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협업 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등 더욱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지사와 종이자원 공급사 간에 상호 긴밀한 의사소통과 협업활동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대한민국 종이자원의 품질 향상을 기반으로 제지사는 더 품질이 우수한 경쟁력 있는 종이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며, 안정적 거래를 통한 상호간 최적의 재고 관리와 창고운영의 효율화 등 상호 win-win 활동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펄프종이기술: 펄프종이기술 독자 가운데는 펄프제지산업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한솔에서 바라는 인재상은 어떤 것이지요.

한경록: 한솔제지에서 바라는 인재상은 크게 ‘성장형 인재’, ‘개방형 인재’, ‘학습형 인재’, ‘실행형 인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장형 인재’는 조직의 지속 성장에 기여하는 인재를 의미하고, ‘개방형 인재’는 외부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인재를 의미합니다. ‘학습형 인재’는 인적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인재를 의미하며, ‘실행형 인재’는 혁신적 업무 방식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인재를 의미합니다. 즉, 새로운 가치의 추구하고 혁신을 위한 인재를 바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모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성원



들이 조직 안에서 조직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 정착부터 직무역량 강화 관점의 직무 교육 및 직무 순환 기회를 제공하고, 직급/직책 등 조직 내 역할 변화와 연계하여 필요한 육성 등 ‘생애주기별 성장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펄프종이기술: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펄프제지산업에서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큰 동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 대표님의 리더십으로 한솔이 더욱 크게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대담: 펄프종이기술 편집위원장 이학래